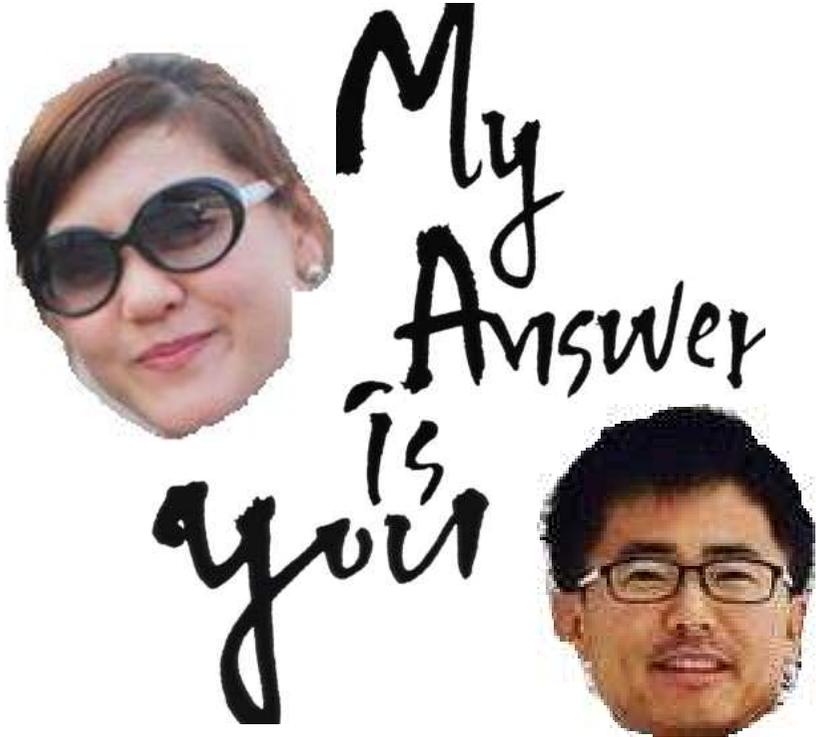


2015 열세시 반 무빙

노답, 답을 찾으러 제주도로

부제: “우린 답이 없는 게 아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 뿐....☆☆☆”



날짜 2015.6.10.수~2015.6.20.토

장소 제주도

타 대안 날짜 2015.6.21.일~2015.6.26.금

타 대안 학교 산청간디고등학교, 산돌학교, 배움터 길,
우다다 학교, 꽃 피는 학교, 지혜학교.

완전체 날짜 2015.6.27.토

완전체 장소 칠보산 자유 학교

■ 일정표

날짜	주제	시간별 프로그램			숙소
		오전	오후	저녁	
6/10 (수)	출발 제주도!	각자 광주로 출발	12:00 광주터미널 집합 셔틀버스로 완도이동 16:00한일카페리1호 탐승	18:50 제주도착 19:30 저녁식사(매식) 21:00 숙소도착	협재평강 게스트하 우스
6/11 (목)	OH! MY JEJU!	올레길 21코스 걷기 (주열이네진행) (점심도시락)		식후 바다산책 첫날소감 나누기	
6/12 (금)	친구들아 반가워~	벌써 만남 준비	협재해수욕장 벌써와의 만남 (하성이네진행)	벌써 안녕! 친해지기문화교류 (규리네진행)	
6/13 (토)	구름비야 잘있니?	강정마을 이동 11시 미사참례	인간띠 만들기 참석 강정마을활동 (성현이네진행)	우리만의 강정 문화제 (성현이네진행)	강정마을 숙소
6/14 (일)	오늘 나는 자유인	안덕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	못다한 빨래와... 휴식	부모님께 편지쓰기 (옆서준비)	안덕 청소년 수련원
6/15 (월)	한라산이시다!	한라산탐험 (점심도시락)		소감 나누기	
6/16 (화)	짜장면 시키신문~	모슬포 향으로 버스이동	마라도에서 짜장면먹기 (마라도 진행)	숙소로...	
6/17 (수)	오늘은 좀 놀자	지구마을 센터로 이동	주변 탐색	우리끼리...	지구마을 센터
6/18 (목)	1박 2일	각 모듬 흠여지기	내일 만나요~	모듬숙소	
6/19 (금)	제주의 마지막	떠나요 제주도~	모듬별 워했는지 자랑하기	저녁파티	
6/20 (토)	육지로...	08:00 한일카페리 1호	완도에서 팽목으로 이동	팽목의 저녁... 둘러보기 목념	팽목항
6/21 (일)	타대안학교 탐방	아침식사	광주로 이동 각자 학교로....		
6/22 (월)		타 대안학교에서 무엇을 했나... 사진으로도 남기고... 좋은 추억이 되었길...			
6/23 (화)					
6/24 (수)					
6/25 (목)					
6/26 (금)	마무리모임	오전수업후 출발!	16:00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 집합	쌤들이 준비하는 시크릿 저녁식사 식후 파퀴타임~	칠보산자 유학교
6/27 (토)	무빙에서 무엇을 했나요?	아침식사	휴식...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저녁식사 파퀴타임~	
6/28 (일)	빠이빠이	아침식사	집으로...		집으로...

▣ 2015 움직이는 학교에 앞서!

- 참가 : 13시반 23명 (민경,태은,비아,규리,지민,예나,자현,연,성현,재성,지현,한솔,주열,하늘,영학,연,케나,하성,창수,창기)
+민혜,철수,희라
- 6월 10일 수요일 낮 12:00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모여
완도 여객터미널로 이동.
(광주종합터미널 “다” 하차장옆 한일카훼리 사무실
12:50 버스 한일카훼리 1호 탑승예정)
- 6월 10일 수 ~ 6월 20일 토 제주도 활동
- 6월 20일 토 ~ 6월 21일 일 진도 팽목항
- 6월 21일 일 ~ 6월 26일 금 각자 타대안학교 체험
- 6월 26일 금 수원에서 마무리 모임
- 6월 27일 토 부모님과 무빙 마무리
- 6월 28일 일 집으로...
- 6월 28일 일~ 7월 4일 토 가정학습
- 7월 5일 일 입교하는 날

▣ 준비물

< 개인별 준비물 >

- * 19일간 모든 활동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물 챙기기
- * 이동이 많으니 짐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화해서 꾸립니다.
- * **옷** : 반팔티셔츠 3, 반바지 2, 긴 바지 1, 긴팔 옷 1, 여벌옷. 속옷 3-4벌, 양말 2-3켢레 (속건성 옷이 좋아요)
- * **신발** : 샌들 및 슬리퍼, 운동화 혹은 경등산화
- * **기타** : 침낭, 배게, 손전등, 부채, 비옷(혹은 판초우의), 우산, 배낭덮개, 모자, 손수건, 손목시계, 지갑, **학생증**, 휴대용 휴지
- * **필기도구** : 자료집, 필기구
- * **배낭**은 두 종류를 준비합니다. 큰 배낭(35리터 전후) 에는 개인 짐을 모두 담습니다. 작은 배낭은 외부활동 및 체험 때 메고 다닙니다. 짐은 최소로 하며 배낭을 저서 두 손이 자유롭도록 합니다.
- * **세면도구** : 치약, 칫솔, 수건 2~3장. 반드시 환경제품으로 준비해옵니다. 샴푸와 비누는 비누공장 제품을 구입해서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 * **도시락통, 개인손가락과 젓가락, 개인컵, 물통** : 점심식사는 대부분 개인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예정이니 밥과 반찬을 담을 수 있는 도시락통과 수저, 물통이 꼭 필요해요.
- * **비옷** : 야외활동이 많아요. 비가 오더라도 대부분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되니 꼭 챙겨주세요.
- * **개인약품** : 개인적으로 평소에 복용하는 약, 렌즈 사용자는 식염수와 렌즈 케이스도 잊지 말고 챙깁니다.
- * **현금** : 학생 각자가 가져와야하는 현금은 6월달 개인용돈 3만원 (오는 차비

는 준비하고 가는 차비는 계좌로 받을 예정)

* **가져오면 좋아요!!** : 등산용 방석, 지퍼백, 부채, 손전등

* **체험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 : 체험하러가는 학교에서 필요한 특별한 준비물이 있으면 가져와야 합니다.

< 학교 준비물 >

* **주방 도구 및 부식** : 식판, 냉면, 버너, 반찬통, 큰반찬통, 집게, 뒤집개, 큰주걱, 양념숟가락, 과도, 가위, 스텐볼(소), 스텐볼(중), 스텐볼(대), 바구니, 스텐 솔, 비닐팩, 조선간장, 식초, 조청, 참맛가루, 밀가루, 진간장, 미역, 캐첩, 잡곡, 라면, 두유, 사과즙, 가스, 김, 다시마, 고무장갑, 행주, 국그릇, 수세미, 수수, 쌀, 김치

* **양념** :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진간장, 국간장, 다시마, 국멸치, 식초, 파, 마늘, 식용유, 소금, 설탕 참기름, 들기름

* **스타렉스** : 차량 등록증, 비상장구, 네비게이션

* **공동 생활용품** : 모기매트, 생리대, 빨래용 대야, 빨래집게, 빨래줄, 화장지, 휴지

* **기타** : 노트북 1대, 사진기, 손톱깎이, 학교홍보물, 학교봉투, 자료집, 문구류, 비누공장 선물세트, 의약품, 사전자료집 10권

< 배낭 싸는 방법 >

1. 무거운 것을 위쪽, 몸 쪽에 담는다.

2. 활용빈도를 고려해서 짐을 싣는다.

3. 어깨끈, 허리벨트, 가슴벨트, 스틱으로 무게를 분산시킨다.

4. 작은 가방에는 안경, 필기도구, 손수건, 휴지 등을 넣는다.

5. 큰 배낭의 경우, 바닥부터 침낭, 여벌옷, 잠바(비옷), 물, 손전등, 세면도구, 배낭덮개 등의 순서로 짐을 차곡차곡 싣는다.

* 이동이 많으니 짐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화해서 꾸립니다.

■ 식단표

날짜	아침	점심	저녁
6/10	.	김밥 구입	매식
6/11	영학이네 소고기 무국, 햄전	쌈들 도시락	하성이네 제육볶음
6/12	예나네 김치볶음밥	법씨와의 점심 영학이네 토마토 스파게티	쌈들
6/13	민경이네 계란간장밥	삼거리식당	삼거리식당
6/14	삼거리식당	선이네 미역국	지민이네 카레
6/15	하성이네 소시지 볶음 콩나물국	쌈들 도시락	쌈들
6/16	지민이네 된장찌게	마라도 짜장면	선이네 볶음밥
6/17	예나네 어묵국 계란찜	선이네 라면	지현이네 베이컨 밥말이
6/18	지현이네 김밥밥, 햄전	모듬별	모듬별
6/19	모듬별	모듬별	캠프파이어
6/20	쌈들	김밥	매식
6/21	매식	타	대안
6/26	학교	탐방	쌈들 !SECRET!
6/27	하성이네 김치볶음밥, 계란후라이		부모님이 준비해 주시는
6/28	집으로		

▣ 제주도 지도



▣ 숙소 정보

협재평강 게스트하우스

숙박기간 : 2015년 6월 10일 ~ 6월 12일(3박 4일)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767번지



찾아오는 길



연락처 : 064-745-3216

강정 마을회관

숙박기간 : 2015년 6월 13일 ~ 6월 14일
(1박 2일)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417

찾아오는 길 



안덕 청소년수련원

숙박기간 : 2015년 6월 14일 ~ 6월 16일(3박 4일)

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850번지
전화번호 : 064) 738-0450



찾아오는 길 



교래자연휴양림(1박 2일 활동 모듬별 숙소1)

숙박기간 : 2014년 6월 18일 ~ 6월 19일(1박 2일)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전화번호 : 064) 783-7482

가격 : 약 5~20만원 대

교래자연휴양림은.....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으로 2011년 개장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곶자왈 생태체험 휴양림으로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지대에 위치하여 치유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친환경 휴양공간입니다. 총 2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곶자왈 생태 관찰로, 오름 산책로, 숲속의 초가, 야외무대, 야영장, 잔디광장, 야외교실, 풋살경기장 등이 시설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몰지와 돌출지가 불연속적으로 형성된 지형의 영향으로 난독특한 식생과 다양한 식물상을 갖고 있으며, 숲이 안정되고 서식 식물종이 다양해 원시림 식생의 특징과 비슷한 점들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책로 일부구간에는 1940년대 산전을 일구었던 산전터와 1970년대 이전까지 숲을 만들었던 가마터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찾아오는 길



버스로 올 때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남조로행) → 교래자연휴양림 버스정류장 → 표선(환승 25분) → 교래자연휴양림

자가용으로 올 때

서귀포 → 516번도로(1131번) → 성판악휴게소 → 비자림로(1112번) → 미니미니랜드 1118번교차로 자회전 후 1km

붉은오름자연휴양림(1박 2일 활동 모듬별 숙소2)

숙박기간 : 2014년 6월 18일 ~ 6월 19일(1박 2일)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 1478-73

전화번호 : 064) 782-9171

가격 : 약 5~20만원 대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2012년 11월 1일에 개장한 190ha(57만평)의 광활한 규모의 휴양림입니다. 40~50년 된 곶솔과 삼나무가 숙박동 좌, 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숙박동 뒤편으로는 고사리류를 비롯한 활엽수림대의 꽃자왈, 노루, 꿩, 복수초, 단풍나무, 구찌뽕나무, 참식나무 등 다양한 동·식물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남조로 서쪽 환상의 관광코스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뚜렷한 계절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제주권 최고의 자연휴양림입니다.



주변에는 전국 유명관광지인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돌문화공원, 성읍민속마을, 삼다수 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고, 휴양림 내에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생태연못, 산림욕장, 잔디광장, 세미나실, 맨발로 거닐 수 있는 산책로와 야자수 매트 탐방로등 다양한 시설을 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주도 중산간의 전형적인 전경과 독특한 풍경이 어우러져 고향처럼 아늑함과 더불어 평화롭고 정겨움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서귀포자연휴양림(1박 2일 활동 모듬별 숙소3)

숙박기간 : 2014년 6월 18일 ~ 6월 19일(1박 2일)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1100로 882

전화번호 : 064) 738-4544

가격 : 약 5~20만원 대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으로서 1995년 3월 21일에 255ha의 규모로 개장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청아한 공기와 울창한 산림이 조화를 이루며 217종의 식물들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꿩, 노루 등 희귀 동식물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놀이 시설과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55종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코스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제주 월드컵경기장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한 3.562 제곱미터의 광활한 중문관광단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기반으로 자연친화적인 현대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식수는 한라산 1300고지에 있는 용천수와 760m 천연 안반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

<버스 시간표>

제주 → 중문	중문 → 제주
06:30(하절기)	07:45(하절기)
08:00	09:15
09:00	10:15
10:00	11:15
11:00	12:15
12:20	13:35
13:40	14:55
15:00	16:15
16:00	17:15

지구마을 청년대학

숙박기간 : 2015년 6월 17일 ~ 6월 19일(2박 3일)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725번지 (구 제주선인장마을)

지구마을 청년대학은.....

양희창 선생님을 비롯한 대안
교육연대의 뜻있는 분들이 작
년부터 청년들의 진로와 대안
적 삶을 위해 제주도에 설립
한 교육공동체 입니다. 아직
까지는 일부 공간이 완비되지
못해 공사중 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마청대에서 17일과
19일 생활하게 됩니다. (18일
은 모뎀별로 여행)

진도 팽목항

숙박기간 : 6월19일 ~ 6월20일(1박2일)

위치 : 전남 진도군 임해면 남동리

팽목항은...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전체 476명
중 295명이 죽고 아직까지 9명이 돌아오지 않는 통곡의 항구, 기다림의 항구입
니다.



■ 제주도는?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특별자치도이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며, 동쪽으로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의 대마도 및 큐슈 지역, 서쪽으로 중국의 상하이와 마주하며, 남쪽으로 동중국해와 마주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 북 아시아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총면적은 1,849.2km², 부속섬은 8개의 유인도와 82개의 무인도가 있다. 인구는 약 56만 명 정도이다.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생긴 화산섬이며, 섬의 중심에는 한라산이 있다. 한라산은 강수량이 많은 편이지만 구멍이 많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해안에서 용천으로 솟아오른다. 중산간에는 오름과 광활한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마을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에선 제주도와 서귀포시, 2개의 시가 있으며, 7읍 5면이 있다.

제주도의 기존의 행정체계로는 육지의 시도와 차별화되는 효율적인 행정이 곤란한데다 1980년대 말부터 근래까지 제주도 관광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연계하는 거점지로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절실하게 느껴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특별자치도'란 무엇일까? 특별자치도란 외교, 국방, 사법(재판) 등을 제외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다. 국제자유도시 체제로서 자치경찰, 자치교육, 주민소환¹⁾이라는 큰 틀에 따라 웬만한 행정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결정, 판단, 실행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관광 개방이 이루어져 특별자치도의 자치가 최대한 확장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또 유·초·중등 및 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파격적이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관광·의료·교육·정보통신산업 등에 500만 달러(2015.2.3 기준 51억2,750만원) 이상 투자하면 재산세를 10년간 받지 않으며 IT(정보통신기술), BT

1)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그 지역 단체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은 50년이고,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 등 8개 국가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관광객은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영리법인(이윤을 목적으로 한 단체)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²⁾,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며 외국인 전용약국도 문을 연다.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속된 자치경찰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기존 권한 가운데 무려 144개 분야 1,060여건이 제주지사에게 넘겨지고, '행정규제 기본법'이 정한 8,000여 가지 규제 가운데 제주에 꼭 적용해야 하는 것만 정해둘 예정이다. 쉽게 말해 특별자치도란 국방 외교권만 없는 제주지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행정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행정구역 권한 부여인 셈이다.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해양성 기후³⁾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한라산은 아열대·온대·냉대의 기후대⁴⁾가 모두 나타나며 18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수직적으로 분포한다. 기온과 강수량은 고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한라산의 남쪽 경사면이 북쪽 경사면 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때문에 서귀포시에 감귤농사가 발달하였다.

여름 평균기온은 육지와 큰 차이가 없으나 겨울 평균기온은 대부분 영하로 떨어지는 등 육지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또한 바람이 다른 지역 보다 많은 편이다. 특히 태풍의 주요 이동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 아열대 기온지역에는 가시나무·후박나무·녹나무·참식나무를 비롯한 활엽수림이 널리 분포했으나,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확대됨에 따라 천연림은 대부분 사라지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일부지역에만 남아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농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대에는 소나무·삼나무 등의 인공림이 널리 분포한다. 특히 감귤밭의 방풍림(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조성된 삼나무 군락은 제주도 지역의 특이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 내 557개 마을은 2개의 시와 12개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서비스 중심으로 해 다양한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마을들은 대부분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대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개 농업과 어업을 생업의 기반

-
- 2) 지금의 보건소나 국립병원을 제외한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의 병원(삼성의료원이나 대학 병원)은 병원에서 얻은
 - 3) 기후는 크게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로 나뉜다. 대륙성 기후는 내륙 지역에 해양성 기후는 해안 지방에 나타난다. 해양성 기후는 강수량이 많고 밤과 낮의 기온차이인 일교차가 작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 4) 온도가 높은 순으로 열대 > 아열대 > 온대 > 냉대 > 한대

으로 한다. 도내 전체 도시지역의 면적은 391.89km²로 전체 면적의 18.9%에 해당하며, 도시지역 내에는 전체 인구의 89.4%가 거주한다.

1970년대 초반에 제주도를 본격적인 국제관광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제주시의 원래 중심지인 관덕정 서쪽에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했는데, 이곳에는 특급관광호텔과 쇼핑센터, 그리고 각종 위락시설이 밀집해 있다.

한라산 남쪽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최남단의 도시 서귀포는 온화한 기후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닌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이다. 원래는 시내 동남쪽 해안에 시청과 항구 등이 있어 인구가 밀집해 있었으나, 1986년부터 서쪽의 강정·서호·법환동 일대에 대규모 신시가지를 건설하고 이곳으로 시청이 이전하였다. 2002년에는 월드컵축구경기장이 건립되어 서귀포시의 중요한 상징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음용수를 비롯한 모든 용수의 공급을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질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강수량이 적어 지하수 함량이 줄어든 반면 지하수 개발량은 급증해 지하수위가 도전체로 평균 3.7m나 낮아졌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7.2m나 낮아져 지하수 고갈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지하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해안지역에서는 염(소금) 오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생활하수 및 사업장의 폐수, 가축분뇨, 농약 및 비료의 과다살포 등으로 해발 200m 이하의 지하수들은 상당 부분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골프장·감귤밭 등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해 토양오염은 심각한 편이다.

▣ 제주도 프로그램

올레길 7코스 지현, 한슬, 주열

초보자가 걷기 좋은 올레길 7코스!!

외돌개~돌베낭길~수봉로~법환포구~일강정바다올레~서건도앞~강정천~
월평포구~월평마을



■ 패스포트 스탬프 확인 장소

시작 외돌개 솔빛바다 입구
중간 켄싱턴 바닷가우체국
종점 월평 아왜낭목

■ 난이도

난이도 - 중

거리(시간) - 14.2km (4~5시간)

수봉로는 언덕 길이고, 일강정 바닷올레에서 서건도 사이 바윗길이 험한 편이다.

■ 콜택시 전화번호

서귀포택시 064-762-2764

서귀포택시콜 064-762-0100

서귀포OK콜택시 064-732-0082

서귀포칠십리콜택시 064-767-1660

서귀포개인택시호출 064-732-4244

5.16 콜택시(제주-서귀포) 064-7516-516

■ 올레길 안내

외돌개를 출발하여 법환포구를 경유해 월평포구까지 이어진 해안올레. 올레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연생태길인 ‘수봉로’를 만날 수 있다. 수봉로는 세 번째 코스 개척 시기인 2007년 12월, 올레지기인 ‘김수봉’님이 염소가 다니던 길에 직접 삽과 곡괭이만으로 계단과 길을 만들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 길이다.

2009년 2월에는 그동안 너무 험해 갈 수 없었던 '두머니물~서건도' 해안 구간을 제주올레에서 일일이 손으로 돌을 고르는 작업 끝에 새로운 바닷길로 만들어 이어, '일강정 바닷올레'로 명명했다. 2009년 3월에는 각종 자연현상에 유실되었던 수봉교 자리에 '풍림올레교'가 세워졌다.

■ 시작점 찾아가기

제주시에서 시작점 찾아가기:

① 제주국제공항에서 리무진버스 600번(소요시간 약 1시간20분)을 이용하여 서귀포시 뉴경남호텔앞 정류소로 이동 → 택시(기본요금)를 이용하여 시작점으로 이동

②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516중문고속화버스 780번(소요시간 약 1시간10분)을 이용하여 중앙로터리(서)정류소로 이동 → 시내버스(동서교통) 110번, 120번, 130번 버스를 이용하여 삼매봉입구로 이동 → 건널목 건너 바닷가 방면으로 약 10분 정도 이동하면 시작점이 보인다.

서귀포시에서 시작점 찾아가기: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서)정류소에서 시내버스(동서교통) 110번, 120번, 130번 버스를 이용하여 삼매봉입구로 이동 → 건널목 건너 바닷가 방면으로 약 10분 정도 이동하면 시작점이 보인다.

■ 종점에서 제주시/서귀포시/시작점으로 돌아가기

종점에서 제주시 돌아가기:

- ① 8코스 진행방향으로 10~1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약천사입구 정류소에서 리무진버스 600번(소요시간 약 1시간)을 탑승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
- ② 맞은편 정류소에서 시내버스 5번(소요시간 약 10분)을 이용하여 중문우체국(북)정류소로 이동 → 516중문고속화버스 780번(소요시간 약 55분)을 이용하여 제주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종점에서 서귀포시 돌아가기:

종점 바로 옆 월평정류소에서 시내버스 5번(소요시간 약 10분)을 이용하여 서귀포 중앙로터리(서)정류소로 이동

종점에서 시작점으로 돌아가기:

종점 바로 옆 월평정류소에서 시내버스 8번(소요시간 약 10분)을 이용하여 서귀포 중앙로터리(동)정류소로 이동 → 정류소에서 시내버스(동서교통) 110번, 120번, 130번 버스를 이용하여 삼매봉 입구로 이동

협재 해수욕장 케나, 하성, 창수

- 위치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길
- 문의/안내 :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94
- 이용시간 : 10:00 ~ 19 :00 (야간
개장 2014년 7월 12일 ~ 2014년 8
월 17일 19:00~22:00)



협재해수욕장은 제주시 서쪽 32km 거리의 한림공원에 인접해 있다. 조개껍질가루가 많이 섞인 백사장과 앞 바다에 떠 있는 비양도, 코발트 빛깔의 아름다운 바다와 울창한 소나무숲이 한데 어우러진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 백사장의 길이 약 200m, 폭은 60m, 평균수심 1.2m, 경사도 3~8도로서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여 가족 단위의 해수욕장으로 적합하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소나무 숲에서는 야영도 가능하다. 이 해수욕장의 남서쪽 해안은 금릉해수욕장과 이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두 해변을 합쳐 협재해수욕장이라고도 부른다.

해수욕장 내에는 탈의실, 샤워실, 휴게소, 식수대,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는 짙은 송림이 있어 야영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전복과 소라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다. 멀지 않은 곳에는 한림공원과 협재굴, 명월대, 황룡사, 영각사 등이 있어 해수욕과 함께 주변을 둘러볼 수 있으며 특히 해수욕장 정면에 보이는 비양도의 모습은 맑고 깨끗한 해수와 어울려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낙조 또한 아름답다.

범씨학교

비아,규리,지민

■ 범씨학교 소개

● 넘나들기: 통합과 통섭

범씨에서는 여러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한 반을 구성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배우며 자라고, 언니-동생 역할과 소통하는 방법을 깨우쳐갑니다. 또 분절되고 파편화된 지식이 아닌, 삶과 일치되는 온전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 교과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스스로: 자발성과 자치성

별씨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배움과 성장을 위한 시간표를 스스로 짭니다. 아이들의 자발적인 욕구로부터 배움거리를 선정하고 세밀하게 과정을 짜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 ‘나’ 가꾸기: 자기 성찰과 수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며 내가 가진 잠재력을 꽃피우고, 내 안의 걸림돌을 확인하면서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힘 있게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합니다.

● 마을과 함께 : 지역을 배움터로, 지역의 일꾼으로

별씨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만 배우지 않습니다. 마을 곳곳을 탐사하기도 하고, 마을의 역사를 알아가고, 마을 어르신들과 대화 나누며, 우리 마을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며 성장합니다.

● 자연스럽게 몸으로 : 문화로 이어가기

별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어떤 수업에서보다는 문화를 통해 전수됩니다. 자기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며 풀어나가는 것, 내 앞에 온 음식을 감사히 여기고 남김없이 먹는 것과 같은 태도들은 일상에서 몸과 마음으로 익혀갑니다.

별씨학교 어린이과정 (1-5학년)

한 사람의 성장은 몸, 마음, 생각이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어린이과정의 교육과정은 몸교과 · 마음교과 · 생각교과, 이렇게 세 영역을 기본으로 하면서, 통합된 형태로 진행합니다.

● 몸교과

몸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다스릴 줄 알고, 몸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며, 몸을 움직여 놓고 일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입니다.

-마당놀이, 운동, 연극놀이, 태권도, 춤, 응급처치, 자연치유, 몸살림, 밥살림, 옷

살림, 집살림, 지기활동,...

● 마음교과

자연, 사람, 사물과 교감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 교감의 과정을 예술 활동으로 표현하고 우리에게 내재된 신명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활동입니다.

-자연명상, 친구명상, 노래, 악기 다루기, 풍물, 북춤, 도예, 나무공예, 세밀화, 풀그리기, 수채, 수묵,...

● 생각교과

주체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를 바탕으로 건강한 삶의 양식을 직접 실천하면서 익혀나가는 활동입니다.

-생활나눔, 말과 글, 수와 셈, 생명과학, 역사, 더불어 사는 길, 주제 공부, 나눔마당,...

● 들모임(생태탐사, 문화체험활동, 지역탐사, 역사 탐방, 자치행사, ...)과 들살림(자치들살림, 가을들살림)

범씨학교 청소년과정 (6-9학년)

청소년 시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심 영역이 분명해지면서 삶의 길 찾기를 주요한 과제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과정의 교육과정은 나읽기 · 세상읽기 · 길찾기의 세 축으로 편성합니다.

● 나읽기

자신의 몸과 마음, 생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을지 스스로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며,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는 자치력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치살림, 살림 프로젝트, 인드라마, 연극, 풍물, 나눔마당, 에니어그램 영성수련과정...

● 세상읽기

세상의 많은 생각과 만나는 과정입니다. 사회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가치관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사고해나가며 시야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말과 글, 사람누리(사회영역), 생명누리(과학영역), 셈, 인문학, 외국어, 스테디, 농촌봉사활동, 주제여행,...

● 길찾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을 읽는 안목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길찾기프로젝트, 단기특강, 멘토여행, 그림자인터뷰, 동아리 활동, 외부연대활동, 진로탐방

법씨학교는 초등~중등3학년 과정인데 중등 3학년 때는 제주도에서 1년동안 생활합니다. 법씨학교는 광명YMCA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을 키우는 곳입니다. 법씨학교 교육 과정은 3~7월 봄여름 학기, 8월~이듬해 2월 가을겨울 학기로 이루어지고 여름과 겨울, 각각 약 1개월 방학을 합니다. 전체 주간 계획은 통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표는 동일하고 시간 배정은 반별 수업이 약 56%, 통합 수업이 44%로 반별 수업이 더 많지만 반별 수업과 통합 수업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수업이며, 일주일 동안 아이들의 몸과 마음, 생각의 리듬, 날씨, 계절의 리듬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교과를 운영합니다.

강정마을

선, 성현, 재성



▲이렇게 아름다운 구럼비 바위가 전쟁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콘크리트로 뒤덮히고 있다!!



1. 강정마을

강정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붙어 있는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 법환과 서호, 서쪽으로는 월평과 도순마을이 인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현재 거주자가 한 명도 없는 영남동이 위치하고 있다. 환경적 특징으로는 깨끗한 바닷물과

풍부한 어자원, 그리고 해안지대의 비옥한 토양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강정마을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계는 유명하다. 강정마을 해안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해안가에는 길이 1.2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름비 바위'가 있고, 해안 주변의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역사 유물 산포지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뚝개'의 대규모 서식지이며,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 "올레 7코스"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절대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2. 해군기지,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이 확정 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고 말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확정지었다.

해군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21세기 해양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력이 대양에 접하는 곳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해군기지의 해군력은 대양을 오가는 자국선박의 안전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수 있다.

2. 주변국과이 국지적인 해양 분쟁에 대비해 손쉽게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하다. 가장 적절한 장소는 태평양에 인접한 제주도이다.

3. 해군기지는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할 수 있다.

4. 유사시에 전력을 강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해군 기지는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처음 사업 대상 지역을 정할 때부터 1900명의 마을 주민들 중 80명만을 모아 만장일치로 유치 결의를 해 버렸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을 연행하는 등 무력진압을 했다. 또 해군 기지 건설 부지는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기지를 지으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것도 문제다.

기지 건설 예정지 바로 앞인 강정 앞바다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안가에 있는 구름비 바위는 길이 1.2km, 너비 150m에 달하는 보기 드문 거대한 단일 용암너럭바위로서, 용천수가 솟아나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를 형성하고 있어 매우 보전가치가 높다. 구름비 바위에는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뚝개'가 살고 있다. 그 외에도, 해군기지를 지음으로써 군사적

위험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논란이나, 민간과 군이 같이 쓰는 '민군복합항'으로 쓰일 예정의 해군기지 설계가 크루즈선이 정박하기 매우 힘든 구조라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쪽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애초에 사업 대상을 지을 때부터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해군기지를 반대한다.
2. 해군기지를 지으면 군사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해군기지를 지으면 구름비 앞바다의 독특한 생태계가 파괴된다.
4. 애초에 설계부터가 크루즈선이 정박하기 힘들게 되어 있으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정박이 불가능해진다.
5. 해군기지 건설 예상부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절대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때문에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르면 개발시설이나 경제행위가 규제되고 주로 학술연구, 생태교육 등의 보전활동만이 가능하다

<시위>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죄'로 엄청난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 589건의 기소건수가 있고 40건에 이르는 구속 건수가 있었고 3억원의 벌금이 매겨져 있다. 앞으로도 벌금이 3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활동가들과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대항하려고 자진노역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노벨평화상 후보 켈시가 와서 시위를 하는 등 해외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활동>

강정마을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생명평화 미사를 하고 생명평화 인간띠 잇기

를 한다.

매년 7월말 8월초엔 제주도 전역을 도보순례하면서 해군기지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사!>

불법 공사로 인해 지금 강정마을 상황은 아름다운 구름비 바위는 보이지 않고 인공방파제만 보인다. 이미 대량의 콘크리트는 바다에 부어진 상황. 하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남아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가는 길마다 해군기지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문구와 글이 길가에 끝도 없이 이어져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해군기지 반대 미사를 드리고 있다.



● 이렇듯 강정마을 주민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매일같이 거리로 나와 해군기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주 4.3사건, 한라산

예나,창기,자현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 또는 제주 4·3 항쟁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제주 민중들의 항쟁과 그에 대한 미군정기때 군인과 경찰들(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는 국군), 극우 반공단체들의 유혈진압을 가리키는 사건을 말한다.

1948년, UN소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한 북한을 제외한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5월 10일에 하도록 결정된다. 이 5.10총선에 대한 반발이긴 하지만, 그 전에 한가지 중요한 사건은,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그때, 제주도민들이 당시 미군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시위하던 시위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 그 사이에 당시 좌익세력들, 즉 공산당세력(남로당)들이 제주도민들 틈새에 침투해서 정부대항세력들을 조직하여 정부에 대항하였고, 당연히 정부도 대항세력들을 진압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

결국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5.10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과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단체들의 폭력에 대한 제주도 주민들의 반발등 여러 복합요소들로 얽힌것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제주 4.3사건은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30여 만 명의 도민이 연루된 가운데 2만5천 ~ 3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이 중에는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나 희생된 사람들 대부분은 서북청년단 등의 극우단체와 군경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였다.

진상 규명 노력

제주 4.3학살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에서 줄곧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역대 정부는 이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금기시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1999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였다.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씻을수 없는 아픈 역사이다.

한라산

한라산의 높이는 1,950m이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제3기 말~제4기 초

제주의 섬

하늘, 영학, 연

외돌개

높이는 20m로 삼매봉 남쪽 기슭에 있다. 바다 한복판에 홀로 우뚝 솟아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5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섬의 모습이 바뀔 때 생긴 바위섬으로 꼭대기에는 작은 소나무들이 몇 그루 자생하고 있다. 오르기에는 너무 위험한 기암절벽의 형태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장군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름에 얽힌 전설이 전해진다. 고려 말기 탐라(제주도)에 살던 몽골족의 목자(牧子)들은 고려에서 중국 명(明)에 제주마를 보내기 위해 말을 징집하는 일을 자주 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목호(牧胡)의 난을 일으켰다. 최영 장군은 범섬으로 도망간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외돌개를 장군의 형상으로 치장시켜 놓고 최후의 격전을 벌였는데, 목자들은 외돌개를 대장군으로 알고 놀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할망바위로도 불린다. 한라산 밑에 어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는데, 어느날 바다에 나간 할아버지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자 할머니는 바다를 향해 하르방을 외치며 통곡하다가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앞바다는 서귀포 칠십리로 유명한 곳으로 해안 경관이 빼어나며 주변에 돈내코·소정방폭포·영도폭포·정방폭포·천지연폭포·문섬·범섬·섬섬·법화사지 등 관광명소가 많다. 찾아가려면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귀포행 시외버스를 타고 서귀포에서 내려 다시 외돌개행 버스를 탄다. 승용차편로는 제주시 터미널(제주항여객 터미널)에서 5·16도로 성판악휴게소를 지나 동흥동 사거리, 서귀포시 터미널, 서문로를 지나 삼매봉에 이르면 삼매봉 휴게소 아래에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서부산업도로를 타고 중문관광단지로 가서 천제연폭포, 신시가지를 지나 삼매봉으로 갈 수도 있다.

우도

면적 5.9km², 인구 1,752명(2000)이다. 해안선길이 17km, 최고점 132m이다. 제주시 우도면을 이루는 섬으로 제주도의 부속도서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다.

성산포에서 북동쪽으로 3.8km, 구좌읍 종달리(終達里)에서 동쪽으로 2.8km 해상

에 위치하며, 부근에 비양도(飛揚島)와 난도(蘭島)가 있다.

1697년(숙종 23) 국유목장이 설치되면서 국마(國馬)를 관리·사육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거주가 허락되었으며 1844년(헌종 10) 김석린 진사 일행이 입도하여 정착하였다. 원래는 구좌읍 연평리에 속하였으나 1986년 4월 1일 우도면으로 승격하였다. 섬의 형태가 소가 드러누웠거나 머리를 내민 모습과 같다고 하여 우도라고 이름지었다.

남쪽 해안과 북동쪽 탁진포(濁津浦)를 제외한 모든 해안에는 해식애가 발달하였고, 한라산의 기생화산인 쇠머리오름이 있을 뿐 섬 전체가 하나의 용암대지이며, 고도 30m 이내의 넓고 비옥한 평지이다. 주요농산물은 고구마·보리·마늘 등이며, 가축 사육도 활발하다. 부근 해역에서는 고등어·갈치·전복 등이 많이 잡힌다.

부서진 산호로 이루어진 백사장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우도 8경이 유명하며, 인골분 이야기를 비롯한 몇 가지 설화와 잠수소리·해녀가 등의 민요가 전해진다. 남서쪽의 동천진동 포구에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일본인 상인들의 착취에 대항한 우도 해녀들의 항일항쟁을 기념하여 세운 해녀노래비가 있으며, 남동쪽 끝의 쇠머리오름에는 우도 등대가 있다.

차귀도

면적 0.16km²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딸린 무인도 가운데 가장 크다. 고산리에서 해안 쪽으로 약 2Km 떨어진 자구내 마을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 걸리는 곳에 있는 무인도이다. 죽도·지실이섬·와도의 세 섬과 작은 부속섬을 거느리고 있다. 깎아지른 듯한 해안절벽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섬 중앙은 평지이다.

섬의 이름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 옛날 중국 송나라 푸저우[福州] 사람 호종단(胡宗坦)이 이 섬에서 중국에 대항할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여 섬의 지맥과 수맥을 모조리 끊은 뒤 고산 앞바다로 돌아가는 길에 날쌔게 배를 만났는데 매가 돛대 위에 앉자 별안간 돌풍이 일어 배가 가라앉았다. 이 매가 바로 한라산의 수호신이고 지맥을 끊은 호종단이 돌아가는 것[歸]을 막았다[遮] 하여 대섬(죽도)과 지실이섬을 합쳐서 차귀도라 불렀다는 것이다.

섬에는 시누대·들가시나무·곰솔·돈나무 등 13종의 수목과 양치식물인 도깨비고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사는 해녀콩을 비롯한 갯썩부쟁이·천무동 등 62종의 초본류 등 총 82종의 식물이 자란다. 주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참돔·돌돔·흑돔·

벤자리·자바리 등 어족이 풍부하여 1월~3월, 6월~12월에 낚시꾼이 몰린다. 바닷바람에 말린 제주특별자치도 특유의 화살오징어로도 유명하다.

찾아가려면 제주시에서 버스를 타고 고산1리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고산초등학교를 지나 15분 가량 걸으면 자구내포구가 나온다. 이곳에서 배를 타면 10여 분 걸린다.

가파도

면적 0.9km², 인구 407명(2000)이다. 해안선길이 4.2km, 최고점 20.5m이다.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5.5km 해상에 위치하며, 남쪽에 마라도(馬羅島)가 있다. 개도(蓋島)·개파도(蓋波島)·가을파지도(加乙波知島)·더우섬·더푸섬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1653년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도 부근에서 표류되어 조선에서 14년을 생활하다가 귀국한 뒤에 쓴 《하멜표류기(漂流記)》에는 '케파트(Quepart)'라는 지명으로 소개되고 있다.

1750년(영조 26) 제주 목사가 조정에 진상하기 위하여 소 50마리를 방목하면서 소들을 지키려고 40여 가구 주민들의 입도를 허가하였다. 섬 전체가 접시 모양의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토양의 풍화도가 높아 농사 짓기에 유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 중 용수조건이 가장 좋고 주변 해역에는 어로자원이 풍부하다. 전복·소라·옥돔·자리돔·자리젓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며, 유적으로는 조개무지·선돌·고인돌군 등이 있고 해녀 노젓는 소리, 방아질 소리, 맷돌질 소리 등의 민요가 전해진다. 모슬포항에서 하루 2회 정기선이 왕래한다.

비양도

면적 0.5km², 인구 171명(2000)이다. 동서길이 1.02km, 남북길이 1.13km이다. 비양도는 죽도라고도 부르는데 섬이자 기생화산이다. 높이는 해발 114.7m이고 비고는 104m이다. 한림항에서 북서쪽으로 5km, 협재리에서 북쪽으로 3km 해상에 자리잡고 있다. 고려시대인 1002년(목종 5) 6월 제주 해역 한가운데에서 산이 솟아 나왔는데, 산꼭대기에서 4개의 구멍이 뚫리고 닷새 동안 붉은 물이 흘러나온 뒤 그 물이 영키어 기와가 되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에 비양봉에서 어떤 화산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비양도 탄생 천년을 맞이하여 축제가 열리기도 하였다.

형태는 전체적으로 타원형이며, 서북~남서 방향의 아치형 능선을 중심으로 동북사면이 남서사면보다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섬 중앙에는 높이 114m의 비

양봉과 2개의 분화구가 있다. 오름 주변 해안에는 '애기 업은 돌'이라고도 하는 부아석(負兒石)과 배개용암 등의 기암괴석들이 형성되었으며, 오름 동남쪽 기슭에는 '펼낭'이라 불리는 염습지가 있다.

주민의 주산업은 어업이고 고구마 등의 밭농사를 겸한다. 부근 해역에는 황돔·농어·옥돔·뱅어돔 등 80여 종에 이르는 어족이 서식하며, 각종 해조류가 자라고 있어 여름철이면 낚시꾼들이 몰려든다. 특산물로는 전복·소라·해삼·오분자기가 있다.

북쪽의 분화구 주변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비양나무(썩기풀과의 낙엽관목) 군락이 형성되어 1995년 8월 26일 제주기념물 제48호인 비양도의 비양나무자생지로 지정되었고, 우리나라 유일의 비양나무 자생지로 보호되고 있다. 고려시대 중국에서 한 오름이 날아와 비양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한림읍 한림항에서 하루 두 번 배편이 운항되며 운항시간은 약 15분이 소요된다.

마라도

마라도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에 속해 있는 섬이다. 섬 이름이 왜 마라도인지 어원의 정확한 근거는 없다. 탐라순력도 대정가사평에 마라도(馬羅島)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여태 마라도로 불리고 있다.

마라도는 바다 속에서 독립적으로 화산이 분화하여 이루어진 섬으로 추정되나 분화구는 볼 수 없다. 북쪽에서 본 마라도는 등대가 있는 부분이 높고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중심부에는 작은 구렁이 있고 섬 전체가 완만한 경사를 가진 넓은 초원을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마라도는 원래 울창한 원시림이 덮여 있는 무인도였다고 한다. 1883년(고종 20년)에 모슬포에 거주하던 김(金)·나(羅)·한(韓)씨 등 영세 농어민 4, 5세대가 당시 제주목사 심현택으로부터 개간 허가를 얻어 마라도에서 화전을 시작하고서부터 삼림지대는 전부 불타 버렸다 한다.

마라도는 섬 전체가 남북으로 긴 타원형(고구마 모양이다.)이고 해안은 오랜 해풍의 영향으로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다. 난대성 해양 동식물이 풍부하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2000년 7월 천연기념물 제42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배를 타고 마라도로 들어가는 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되며, 보통 다음 배가 오기까지 한 시간 반 정도 체류하면서 마라도를 돌아보게 된다. 섬 전체를 돌아

보는 데 도보로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우리는 마라도에서 잔다.)

마라도는 섬의 둘레를 따라 해안절벽이 멋지게 펼쳐져 있다.(고한다.) 백년초가 해안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도 아름답다.(고한다.) 한반도 최남단 표지석 옆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망망대해이다. 또 마라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전 세계 해도에 꼭 기재된다는 마라도등대가 놓여있다.

마라도에 있는 것들은 모두 최남단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 절도 하나 있고 성당도, 교회도 하나씩 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마라분교도 있다.

그래도 마라도하면 역시 짜장면이다.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을 안 먹고 오면 섭섭한 일이다. 마라도 짜장면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T.V광고, 방송프로그램 등 여러 방송매체에서 소개된 이유도 있고 원조 해물짜장면이란 타이틀 덕에 사람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마라도는 용천수가 나지 않아 집집마다 비가 오면 빗물을 모았다가 여과시켜 가정용수로 사용하며,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

▣ 타 대안학교 13시반 분포 표

학교	학생	담당샘 연락처	주소 및 비고
산청간디고	하성,영학, 민경,태은	조생연 010-4542-4776	산청군 신안면 둔철산로 210 고등3년(기숙)
꽃피는 학교	지현,하늘, 창수,주열	02-766-0922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유치초중고15년-서울고등 서대문구 연희동(통학-비아할머니댁)
우다다 학교	케나,예나	주성샘 010-8965-2132 051-514-8812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299번지 중고통합5년(통학)
산돌학교	창기,지민, 연,선,한슬	031-511-3295 안영미 010-6737-4353	경기도 남양주시 수면동 운수리 357 산돌학교 생활관 중고통합5년(기숙)
배움터 길 학교	자현,재성	김석윤 010-2278-0307 031-421-3779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중고등통합(통학)
지혜학교	규리,비아,성현	062-962-0980	광주 광산구 박호등임로 485 (구: 등임로 410) 중고등통합(기숙사)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299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
예전로 84

Tel.☎- 051 514 8812

기간- 6/22(월)~6/26(금) 9시등교

숙박료- 통학이라서 숙박료 없음

식비- 무료

규칙-폰은 폰사물함에 반납,기본적인 흡연,음주,폭력금지,나머지 세부적인 규칙
은 등교시 알려준다고 하심

2000년에 설립되어 2015년 현재까지

우다다 뜻- 우리는 다 다르다

학생수- 58명

선생수- 담임,전직교사(7명) 자원봉사자,강사(24명)

중등3년 고등2년과정- 나이로 구분되어지는 학년이 아니라 스스로의 준비정도에
따라 중.고 나눠짐 그리고 졸업,알파신청을 받는다.

졸업신청- 졸업신청을 받으면 고2때 졸업(5년제)

알파신청- 알파신청을 받으면 고3까지 다닐수 있다(6년제)

학교철학

1. 낮은곳으로의 삶의 지향
2.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용기

▣ 타 대안학교 끝나고 칠보산 자유학교 가는 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03-1번지

전화 : 민혜쌤한테 하던지 철수쌤한테 하던지 하삼!!

010-9125-9578, 010-6827-3623

길찾기 : 수원역에서 13번, 13-1번, 13-3번, 13-5번, 9번 시내버스를 타고 금곡동 엘지빌리지 3단지 상가에 내리면 상촌성당이 보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 3단지 상가 앞 상촌성당>



■ 쉬어가는 코너

제주도 방언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으로 워낙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제주도 방언, 사투리가 생겼다.

1) 제주 사투리의 특징

제주의 사투리는 타 지방 사투리와는 다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다. 그 이유는 제주의 사투리는 말이 짧고, 대부분이 줄임말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어미에 시가 붙고 조선시대의 아래아(.)가 발음상에 남아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과거로부터 조상들의 삶에서 묻어 온 사투리들을 생활 속 깊숙이 간직하며 살아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투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제주도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2) 제주도 방언으로 부른 <곰 세 마리>

곰 쉬모리가 혼집에 있어
아방곰 어멍곰 아기곰
아방곰은 뽕뽕해
어멍곰은 쭈쭈해
아기곰은 잘도 아꼬아
으쓱 으쓱 잘 혼다.

3) 제주 사투리와 표준어 비교이해

제주 사투리	표준어
흔저옵서	어서오세요
웁데강,흔저오십서.	오셨습니까, 어서오십시오.
왕 뵙 갑서	와서 보고 가세요
흔저 흔저, 재게 재게 옵서	어서 어서, 빨리빨리 오세요
도르멍 도르멍 옵서	뛰면서 오세요
놀멍 놀멍 봅서	천천히 보세요
또시 꼭 옵서양	다시 꼭 오세요

제주 사투리	표 준 어
흔저 읍서. 제주도 사투리로 말 호난	어서 오십시오. 제주도 사투리로 말 하니까.
무신 거엔 고람 신디 몰르쿠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요?
게메 마썸, 귀 눈이 왁왁하우다.	글쎄 말입니다. 귀와 눈이 캄캄합니다.
경해도 고만히 생각호명 들으민 조금씩 알아 집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며 들으면 조금씩 알 게 됩니다.
제주도 사투리 촌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 이우다.	제주도 사투리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입 니다.
펜안 하우파? 제주도엔 오난 어떻 하우파?	편안(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 오니 어떠하십니 까.
촌말로 좋수다. 공기도 맑고,	정말로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산이영 바당이영 문막 좋은게 마썸.	산이랑 바다랑 모두가 좋습니다.
서울에 갈 때랑 하영 담양 갑서.	서울에 갈 때는 많이 담아서 가십시오.
게메, 양. 경 해시민 얼마나 좋코 마썸?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 니까?
저기, 물허벅 정 가는 거, 비바리덜 아니파?	저기, 물허벅(바구니)지고 가는 거, 처녀들 아십니까?
맞수다. 비바리도 있고, 냉바리도 있수다.	맞습니다. 처녀도 있고, 시집 간 여자도 있습니다.
비바리덜 곱들락 호고 놀썸하우다 양 !	처녀들도 곱고 날썸 하군요 !
안아 보곡 소랑호젠.	안아보고 사랑하려고.
호꿈만 이십서게.	조금만 계십시오.
몽케지 마랑 흔저 오라게.	꾸물대지 말고 어서 오너라.
이 조끄뜨레 오라게.	여기 가까이(옆에) 오너라.
무사 조끄뜨레만 오랜 햄수파?	왜 가까이(옆에)만 오라고 하십니까?
호꿈이라도 고치만 있구정 호연.	조금이라도 같이만 잇고 싶어서.
놈덜 우습니다.	남들이 웃습니다.
어떻 호느냐? 소랑에는 부치름이 엇나.	어떠하냐? 사랑에는 부끄러움이 없단다.
조끄뜨레 하기엔 하영명 당신.	가까이 하기엔 머나먼 당신.
흔저 왕 먹읍서.	어서 와서 드십시오.
맨도롱 하우파?	따뜻합니까?
뜻뜻흔 게 먹기 똑 좋았수다.	따끈따끈한 것이 먹기에 꼭 좋았습니다.
맨도롱 흘 때 호로록 들어 싸뵈서.	따뜻할 때 후루룩 마셔 버리십시오.
과랑 과랑흔 벅디	쟁쟁한 햇볕 속에
일 호젠 호난 속았수다.	일 하려고 하니 수고 했습니다.
속을 거 있수파? 호꿈, 뚝은 낫수다만,	수고 할 거 있습니까? 조금, 뚝은 낫습니다만,
안트레 들어 왕, 저녁 먹영 갑서.	안으로 들어 오셔서, 저녁식사 하고 가십시오.

하영봅서.	많이보세요
강웁서.	갔다오세요
쉬영갑서.	쉬어서 가세요
이시냐.	있느냐
햄시냐.	하고있느냐
와시냐.	왔느냐
검절매레 안갈꺼과.	김매러 안가실겁니까.
종쑤과.	종습니까.
이쑤과.	있습니까.
알았수다.	알았습니다
침대방 허쿠과. 온돌방 쓰쿠과.	침대방 하겠어요? 온돌방 쓰겠어요.
여기서 서울더레 해집주양?	여기서 서울에 전화할 수 있지요?
제주엔 참 좋거 만쑤다양.	제주엔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랑 전복죽 썬쑤서양.	저녁식사때는 전복죽을 쑤어주세요.
어디서 읍데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날봅서. 있쑤과.	여보세요. 계십니까?
예. 어서 읍쑤.	예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사쿠과.	얼마나 사겠습니까.
많이팝서 다시 오쿠다 양.	많이 파십시오, 다시 오겠습니다.
영 갑서양.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거 얼마우과.	이거 얼마입니까.
독새기, 놉뻐, 콕데사니, 아방	달걀, 무우, 마늘, 아버지
어멍, 비바리	어머니, 처녀
왕갈랑갑서.	와서 나누어 가지고 가세요.
경허지 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탕갑서.	차를 타고 가세요.
놀암시냐	놀고 있느냐?
감시냐	가느냐?
오라시냐	오라고 하느냐?
가시냐	갔느냐?
저디 산 것 말이우과?	저기 서 있는 것 말입니까?
이거 얼마우과.	이거 얼마입니까.
어디 감수과	어디 가십니까?

넬 오쿠파	내일 오시겠습니까?
골암수파	말하십니까?
맛조수다게	맛있습니다.
어느제 오쿠과	언제 오시겠습니까?
놀당 갑서양	놀다가 가십시오.
도르멍 도르멍 가다	뛰면서 뛰어가다.
별이 과랑과랑 허다	햇별이 쨍쨍나다.
폭삭 속았수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4) 제주도방언 - 음식

걸명 : 제사 끝에 잡귀에 주기 위하여 음식을 조금씩 떼는 것
 고적 : 장례 때 일가에서 부조로 드리는 떡이나 쌀
 돌래떡 : 메밀가루나 쌀가루 등으로 만든 둥글고 납작한 떡 (상가에서 만들어 역군을 대접하였다)
 둠비 : 두부
 비제기 : 비지
 누녕이 : 누룽이, 눌은 밥
 모물죽 : 메밀죽(*모물범벅)
 반지기 : 쌀과 잡곡으로 반반 섞은 밥
 세미떡 : 만두(속에 팔이나 무채 등을 넣어 만든 반달 모양의 떡)
 송애기떡 : 고사떡, 말뚱 모양의 떡
 신다리 : 밥을 발효시켜 만든 단술의 일종
 오매기 : 술을 빚기 위하여 자조로 만든 떡
 은절미 : 메밀로 만든 네모난 떡
 조팜떡 : 조로 만든 범벅(*조축·조침떡·조팜)
 고비리 : 증식(밤에 중간에 먹는 음식)
 체 : 생채소를 간 맞추어 만든 것
 양 석 : 양식
 송 키 : 채소
 식개태물 : 제사음식
 상외떡 : 밀가루로 만든 빵
 곤 떡 : 쌀떡

친 떡 : 친떡(시루떡)
 죄기떡 : 밀가루 검칠을 가루로 만든 떡
 전기떡(쟁기떡) : 메밀가루로 만든 떡(빙떡)
 제 펜 : 쌀가루로 만든 찌떡
 솔 펜 : 쌀가루로 만든 반달같은 떡
 절 뺨 : 쌀가루로 만든 원형의 떡
 우 짝 : 작은 원형 떡
 중 과 : 네모난 지진떡
 약 과 : 직사각형 지진떡
 돛괴기 : 돼지고기
 감저 : 고구마
 지실 : 감자
 조배기 : 수제비
 개역 : 미숫가루
 것 : 동물먹이(예:도세기 것)
 괴기 : 고기
 바당괴기(바룻괴기) : 바닷고기(생선)
 돛괴기 : 돼지고기
 쇠괴기 : 쇠고기
 돛괴기(도세기괴기): 돼지고기
 곤떡 : 쌀로 만든 떡
 곤밥 : 흰 쌀로 지은 밥
 독세끼 : 달걀 몰괴기 : 말고기
 놌뻬 : 무우
 대사니 김치 : 마늘장아찌
 마농 : 마늘, 파

마농지 : 마늘 장아찌
모밀 조배기 : 메밀 수제비
출래 : 반찬
참치김 : 참기름

..... 짐치(짐끼) : 김치
..... 초쌀 : 찹쌀
..... 조팍 : 좁쌀로 지은밥
..... 독괴기 : 닭고기

제주도 설화

제주도는 조선시대에는 유배를 보낼 정도로 고립된 곳이라고 해. 그런만큼 제주도만의 독특한 설화들도 많이 생겨났지.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바다나, 한라산, 기생화산인 오름 그리고 주로 여성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단다. 육지와는 또 다른 제주도의 설화, 궁금하지 않니?

첫 번째 이야기, 오돌또기 민요

옛날하고도 먼 옛날 제주도의 어느 마을에 김복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청년은 성품이 곧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어. 그러다 흠어머니와 동네사람들이 과거시험을 보라는 권유로 시험을 보러 떠났게 되었지. 청년이 떠나는 날에 바다는 햇살이 빛나는 잔잔한 바다였단다. 복수는 배에 올랐지.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 배는 그 폭풍우를 이기지 못하고 난파되었어. 목숨을 겨우 건진 복수는 파도에 몸을 맞긴 채 어느 곳에 떠내려갔대. 눈을 뜨자 앞에 어여쁜 처녀가 간호를 하고 있었어. 그 처녀의 이름은 임춘향이래. 원래는 유구 (중국의 동쪽에 있다고 전해지는 나라.)사람이었는데 일본에 있는 오라버니를 만나러 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 안남(베트남)에 살게 되었다고 해. 김복수와 임춘향은 눈이 맞아, 금술이 좋은 부부가 되어 3남 3녀를 낳고 잘 살고 있었어. 그러나 복수는 고향에 남아있는 흠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남에 조선의 배가 왔어. 복수는 춘향과 같이 가고 싶었지만 당시 여자는 배를 탈수 없었기에 홀로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데려 오겠다는 말을 하고 배에 올랐어. 일본으로 간 복수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춘향의 오라버니를 만났지. 춘향을 보고 싶어하는 오라버니가 당장 안남으로 떠나자고 했다. 그들을 태운 배는 제주를 거쳐갔어. 복수는 제주도를 지날 때 물통에 구멍을 뚫어 바다에 빠뜨리고 제주에 잠시 배를 대고 물을 떠가자고 했지. 마침내 복수는 집으로 가 동네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어. 그들은 시간 지나는지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고, 그동안 배는 복수를 기다리지 않고 안남으로 떠났어. 배를 놓친 복수는 부두에서 울부짖었지만 춘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는 없었어. 그 날 부터 복수는 가족이 생각나면 바닷가에서 오돌또기 민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 어느 날부터 복수가 보이지 않았고 동네에는 복수가 바다를 건너갔다는 소문과 배를 타고 춘향에게 갔다는 소문만 퍼졌단다. 지금의 오돌또기민요는 김복수와 임춘향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남아있어.

두 번째 이야기, 매고할망

고려시대 말엽쯤 제주의 한 마을(애월읍 광령리 인근)‘비신굴’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처녀를 사랑하는 무지렁이 총각이 있었어. 하지만 처녀는 이 총각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님의 소개로 이웃마을의 총각에게 시집을 가버렸단다.

그래도 이 무지렁이 총각은 처녀를 사모하는 마음을 접지 못했어. 총각은 그녀의 남편에게 접

근해 사냥을 함께 가자고 했다가 그를 죽이고 혼자 마을로 돌아왔어. 소식을 접한 마을은 벌컥 뒤집어졌지. 마을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남편을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찾을 수 없었어. 죽은 사람을 무슨 수로 찾아. 그리하여 결혼한 지 1년도 안되어 처녀는 과부가 되었어.

그때부터 무지렁이 총각은 처녀에게 접근해 굶은일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도와주었어. 몇 해가 지나자 처녀는 무지렁이 총각이 자기의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총각의 정성에 감복해 무지렁이 총각과 처녀는 식을 올렸어. 한 해에 아들을 하나씩 낳아 일곱 형제가 되어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

총각은 비가 와 모두 일을 하지 못 일손을 놓고 마루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마당에 떨어지는 빗물이 거품을 내는 것을 보고 한참을 웃는 거야.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부인이, “비가 와서 사냥도 못하게 되었는데 왜 웃으십니까.”라고 물었지. 그리고는 별 일 아니라고 하면서 도 실실 웃네. 부인이 궁금하니 자꾸 남편한테 물었겠지. 그러자 남편은 생각했지. ‘세월도 이만큼 흘렀고, 옛 남편은 잊었을 것이야. 아이들도 이미 일곱 형제나 되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설마 어찌지는 않겠지.’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여 그 때의 일을 모두 말해버렸어.

“마당에 떨어져 거품을 내는 빗물이 마치 당신의 전남편이 죽을 때 흘리던 핏물 같아서 웃었소.”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 부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지. 그리고 다음날 나무하러 가는 척하며 산에 올라가 전 남편의 시체를 수습해 곧바로 관가로 달려가 통곡을 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비신굴에 사는 아무개는 제 남편인데 살인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을 죽이고 저와 결혼을 하여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인자인 줄 모르고 함께 살며 아들형제를 일곱이나 낳아 살아왔습니다. 모두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사또가 말했다.

“네가 낳은 자식들까지 모두 죽이면 어찌 하느냐, 하나는 살리도록 하여라.”

그러자 아내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종자를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어찌하옵니까. 모두 죽여주십시오.”

결국,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죽인 그녀는 자신의 무덤을 손수 파고 질경이로 기름을 짜서 그 속으로 들어갔어. 무덤에는 작은 구멍만 남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되면 그 구멍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생명을 다했다고 해. 전 남편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열녀라 하지만 자식들마저 모두 죽였기에 매정하다고 하여 '매고할망'이라고도 하고, '스스로 땅에 묻힌 할머니'라고 하여 '매고(埋姑)할망'이라고도 불렀다 한단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비신굴을 떠났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어. 지금은 마을이 있었다는 흔적만 찾아볼 수 있을 뿐, 이제는 흔적조차 없는 마을이 되었지만, 비신굴에는 한때 행복하게 살았던 매고할망의 추억이 서린 '비신굴'에는 매고할망과 전 남편이 못 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13시반이 좋아하는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 - 옥상달빛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 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 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날

*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날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냥만고양이 - 체리필터

sweet little kitty sweet little kitty

내 두눈 밤이면 별이 되지 -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번 다신 생선가게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거예요(더 자유롭게)
거미로 그물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냥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냥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여

(sweet) sweet little kitty

깊은 바다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 없이 밑으로만 가라 앉고 있는데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더 자유롭게)
거미로 그물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취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여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취 (도시를 비취)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떠나가 버린 아)
깊고 슬픈 나의 바다여
(sweet) sweet little kitty

▣ 움직이는 학교 규칙

● ‘움직이는 학교’도 학교교육과정이니 만큼 학교생활에 준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 . 용돈관련 : 3만원 한도에서 사용한다. 왕복개인차비는 별도. 관리 철저히 할것.
- . mp3, 디카, 사진기는 소지 가능하나, 무게, 관리 등은 본인 책임. 단체생활에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 할 것
- . 핸드폰, 오락기 등은 소지 금지
- . 스마트기기 : 공공장소, 수업, 기타 모임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음./무선 인터넷, 게임, TV등의 기능을 사용하면 핸드폰과 동일 적용.
- . 식당털이 금지
- . 드라이기는 제한적으로 사용 할 것
- . 샤워는 신세지는 곳이 많으니 눈치껏하도록 하고 친환경용품 사용할 것
- . 시간을 잘 지키자
- . 일정을 잘 지키자
- . 하루 일지 꼬박꼬박 쓰기
- . 텔레비전, 인터넷 사용 금지
- . 매점 금지
- . 일회용품, 인스턴트 식품 사용 금지

- 흡연 -

■ 취지 : 학생들의 흡연은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흡연 자체가 가지는 청소년기의 역기능으로 인해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흡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고 소수지만 중독성을 가진 친구들도 있다. 이제 학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흡연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흡연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고, 건강위원회 활동을 통해 금연의 의지를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 금연에 성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운영규정은 흡연에 한하도록 한다.)

1. 건강위원회 운영방안

- 1) 흡연학생은 가입절차에 따라 건강위원회에 등록한다.
- 2) 금연을 위하여 노력하고 흡연의 확산, 냄새, 쓰레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건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 4) 매 학기 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가입절차

흡연을 하는 학생 중 스스로 금연의지를 갖거나, 타인에 의해 적발되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자동으로 건강위원회에 가입되며 자신의 흡연현황을 알리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건강위원회 규칙 적용 절차

- 1) 학부모 알림
- 2) 매주 월요일 상담과 건강주간점검표 작성 : 담당교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줄여가며 최종 금연할 수 있도록 한다.
- 3) 가입 후 2주, 4주 차 월요일에 교내 소변검사
- 4) 건강프로젝트 - 최종 탈퇴할 때 까지 매일 운동장 5바퀴 돌기 (학생회 소속 건강 위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4주 차 소변검사에서 금연을 확인받아야 한다.
- 6) 4주 차 소변검사에서 금연에 실패하는 경우,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가족회의에 알리며 초기 가입 상태로 돌아가 처음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심한 중독성이 의심되는 경우 담임교사와 의논해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다.

* 필리핀 체험학습과 움직이는 학교는 건강위원회를 최종 탈퇴하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 7일 이내에 소변검사에 통과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특별소집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에 따른다.

4. 건강위원회 탈퇴 규정

- 1) 금연을 성공하면 건강위원회를 탈퇴 할 수 있다. (4주 후 소변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금연위원회에서 친구들의 확인을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2) 건강위원회 탈퇴 후에 다시 흡연을 할 경우 최초 흡연과 동일한 상황이 적용된다.

- 음주 -

* 음주의 특성 - 흡연과 비교해 중독성은 없는 편이며 충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함께 행하며 음주 후 이성과 자제력을 잃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접근 방향 - 강한 처벌보다는 대화와 상담으로 스스로 음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한다.

1. 1차

- 1) 학부모 알림
- 2) 술에 관한 글을 쓰고, 그것으로 상담 교사와 나누기
- 이번 음주에 대한 기록 / 내 음주의 역사 / 나의 술버릇 / 술을 마신 후의 느낌과 내 몸의 변화
- 3) 금주위원회 위원으로 가입 및 활동 (1년 동안 음주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
- 4) 가족회의 때 상담내용과 소감 발표

2. 2차

- 1) 학부모 알림
- 2) 전체 사과문 발표와 게시
- 3) 마술학교 입학 활동 (술의 유해성에 관한 다규 시청, 반성 노작 3시간, 청소년 금

주에 관한 캠페인 3회)

3. 3차

- 1) 학부모 알림
- 2) 학부모 학교방문 - 가족 금주학교 (가정 안에서의 음주문화 토론, 가족 노작 2시간)
- 3) 가족회의 때 금주학교 내용과 소감문 발표

4. 4차

- 일주일 귀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돌아옴 (금주학교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 완수- 금주에 관한 책임기, 자기 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활동 제시)
- 알콜상담센터에서 상담하기
 - <내 몸 대청소> 책 읽고 독후감 쓰기
 - 봉사활동
 - 부모님과 심층 간담회

5. 4차 이후 - 4차 규정 반복 적용

- * 위의 차시 적용은 첫 음주부터 1년 안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 * 상황별 피해 사례에 따라 가족회의에 회부하여 가중처벌 혹은 심층 논의할 수 있습니다.
- * 근처 매점에서 구입했을 경우, 찾아가서 사과 및 협조 요청

- 폭력 -

1. 폭력사건에 대한 판례

- 1) 단순사건일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수행 진행함
 - ① 100배를 1회 한다 (생명평화 100배 서원에 맞춰서)
 - ② 자기가 좋아하는 것 10가지, 싫어하는 것 10가지를 적어서 교환한다.
 - ③ 각자가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2) 폭력사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논의될 수 있음

가급적 움직이는 학교에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 평정위로 이관하여 논의할 수 있음

2. 평정위 폭력사건 절차 (사건이 접수되면)

- 1) 담임 혹은 멘토가 당사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사건경위서를 작성한다. 사건 경위서는 가급적 6하 원칙 아래 구체적으로 적는다.
- 2) 평정위 회의 때 담임 혹은 멘토와 해당 학생이 출석하여 진술 절차를 밟는다.

- 3) 평정위는 사건의 정황을 검토 후 책임수행을 정하고 해당학생에게 명령 혹은 제안을 한다
- 4) 명령 혹은 제안을 가족회의에서 동의를 구한다. 동의를 구하기 전 해당학생은 사과를 하고 질의와 응답의 절차를 거친다. (단, 이의가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가족회의 혹은 평정위에서 책임수행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5) 해당학생은 책임을 수행하고 수행에 따른 관리를 학생위원이 담당하고 평정위에 보고한다.

■ 비상 연락망

쌤들 연락처

송민혜 010-9125-9578

이철수 010-6827-3623

고희라 010-2620-8891

제천간디학교 043)653-5792

2015 움직이는 학교 연락처

주제	이름 및 관련단체	연락처
제주체험	변진현 학교밖 작은학교 '오름'	010-4379-5774
	법씨학교 제주학사 이영이쌤	010-7700-3471
	박윤애(강정마을)	010-4571-0988
	문용포 곳자알 작은학교	016-691-7099
숙소	협재평강게스트하우스	064)745-3216
	안덕청소년수련원	064-738-0450
	지구마을 센터(용기쌤)	010-2400-2621
	강정마을 딸기쌤	010-9735-0408
	서귀포자연휴양림	064)738-4544
	교래자연휴양림	064)783-7482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064)782-9171
교통편	한일고속	062)362-3116
		1688-2100 완도 061)554-8000
	모슬포	064-794-3500 / 794-5490~1
광주 교육관	평목향(윤희쌤)	010-8446-3636
타 대안학교 탐방	산청간디학교	055)973-1049
	광주 지혜학교	062)962-0980
	(서울 고등) 꽃피는학교	02)766-0922
	산돌학교	031)511-3295
	우다다학교	051)514-8812
	산티학교	054)571-3213
	배움터 길 학교	031)421-3779
마무리 모임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 (하성맘)	010-4992-9203
기타	여행자 보험(동부화재 이길호)	018-500-3115